

금감원, 채권 추심 모범 기준 시행

야간에 전화 빛 독촉 못한다

앞으로 채무자에게 야간을 이용하거나 수시로 방문해 빛 독촉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채권 추심 업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채권 추심업자가 지켜야 하는 이런 내용의 모범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빛을 받아내기 위해 오후 9시~오전 8시에 전화 등으로 연락하거나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전화 공세를 해서는 안된다.

채무자를 방문할 수 있는 횟수는 실제 대화

가 이뤄진 것을 기준으로 주 2회 이내로 제한되며 채무자 또는 그와 관련된 사람을 미행해 심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허위 소식을 전해 채무자에게 충격을 주는 등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빛을 빨리 안 갚으면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다” 등의 녹음을 남기거나 채무자의 자녀에게 위협을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금지된다.

채권 추심을 위해 법원이나 검찰 등 사법당

국이 작성한 것처럼 꾸민 인쇄물이나 우편물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대부업자 등에게 돈을 빌리거나 장기 매매 등을 통해 빚을 갚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면책을 결정할 경우 ▲채무자가 중병에 걸린 경우 등에는 채권 추심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금지되는 채권 추심 행위 사례

- 거짓 소식으로 채무자에게 심한 충격을 받게 하는 행위
- “아이들 등 학교길 조심하라”고 언급하는 행위
- 채무자의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 오후 9시~오전 8시에 연락하는 행위
- 필요 이상 전화로 정상적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과도한 방문실제 대화 기준으로 주 2회 이하로 제한
- 채무자를 계속 따라다니며 심한 불쾌감을 주는 행위
- 속칭 ‘키드갱’에 의한 변태를 강요하는 행위

(자료: 금융감독원)

현장과 시각

전남도교육청 ‘청렴만족’ 이르다



최재호

체육부 차장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측정결과 10점 만점에 9.04점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해 6위에서 2위로 경쟁 뛰어 기본 좋게 한해를 마무리하게 됐다.

전남도교육청은 특히 “1위 제주도는 교직원, 학교 수 등 규모 면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남이 1위인 셈”이라며 흡족해 하는 표정이다.

지난 2001년 이전까지만 해도 각종 비리가 난무하고 현지 교육감이 수뢰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까지 빛는 등 교육계의 고질적 병폐들로 가득 차 있었던

도교육청으로서선 뿌듯한 결과일 것이다. 물론 다행스럽고 칭찬받을 일이다.

올해 신실학교 기자제 남품비리로 얼룩진 광주시교육청이 16개 시·도 중 13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도 도교육청의 청렴도는 단연 돋보인다. 도교육청이 광주시 교육청의 남품비리가 터졌을 때 ‘전남은 그렇지 않다’고 기자 앞에서 자신감을 표명했는데 어쨌든 결과가 그것을 입증했다.

그러나 만족하기는 이르다. 도교육청의 올 한해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의 징계내용을 들여다 보면 문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이권개입, 청탁, 인사비리 등을 평가하는 청렴도에서는 나아졌지만 공무원 개인의 도덕성은 오히려 퇴보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의 2006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현황에 따르면 불문경고와 견책, 감봉 등 경징계는 2005년 41건에서 올해 26건으로 줄었다. 그렇지만,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는 2005년 5건에서 12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더욱이 지난해 1건씩밖에 없었던 해임과 파면은 2건과 3건으로 증가했는데 내용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학생 성추행, 회계관련 부정 등 죄질이 좋지않다.

감사관실은 이에 대해 청렴도면에서는 꾸준한 클린운동으로 성과를 거뒀으나 공무원 개인의 도덕성이나 준법정신까지 교육시키고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식의 코멘트를 내놓았다.

일견 수긍이 가지던 도교육청 편할 대로 내린 해석이다. 공무원 범죄를 오로지 개인적 문제라만 돌려 예방이 어렵다는 정도의 표현인데 무책임한 태도다.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 등 개인의 도덕적 자질 향상은 결국 조직 전체의 청렴도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징계증가는 ‘클린 전남교육운동’을 펼친다고 해왔지만 공무원에 대한 교육 부족 등이 드러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켜보겠지만 다가오는 2007년에는 도교육청이 청렴도 평가에서뿐만 아니라 공무원 범죄 처분에서도 징계가 줄어들어 명실상부한 ‘클린 전남교육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lion@kwangju.co.kr

이재정 통일부 장관 “평화프로세스 위한 남북대화 추진해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8일 “앞으로 6자회담과 병행해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남북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장관 취임 후 첫 정례브리핑에서 “중전선언을 위한 콘텐츠를 연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평화프로세스의 여러 내용을 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남북회담 재개 시기에 대해서는 “회담은 열리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가지고 모이느냐가 중요하다”면서 “가능한 빨리 열리기를 희망하지만 언제 어떻게 열린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유보된 쌀·비료 지원의 재개 문제에 언급, “가장 큰 것

이 6자회담 진전이고 남북 간 대화도 그 하나이며 국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돼야 한다”고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또 “인도적 지원에 대한 개념과 운영원칙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면서 “수해 때 긴급구호로 지원한 것과 차관 형식으로 지원한 것 등을 어떻게 성격 구별해 정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해 조건 없이 지원할 부분과 레버리지(지렛대)로 써야 할 부분에 대한 원칙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미국의 노력도 당부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상당히 유연하게 대책을 찾아야 하고 북측 정부도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진지하고 책임있게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06 한미 친선 송년음악회’ 28일 오후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캠프 케이시에 열린 ‘2006 한미 친선 송년음악회’에서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아리랑’을 연주하고 있다.

28일 오후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캠프 케이시에 열린 ‘2006 한미 친선 송년음악회’에서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아리랑’을 연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민순 외교, 내달 美서 외교장관 회담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기로 하고 28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내외신 정례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이 밝힌 뒤 “라

이스 장관 등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만나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각국 행정부의) 책임있는 사람으로부터 6자회담의 대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누구도 대안의 구체적 내용을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희망의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따뜻한 햇살과 사랑 속에 그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희망을 대표하는 모방작인 비즈니스호텔로서, 편안하고 따뜻한 객실 분위기 더해 맛있는 한정식음료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다만, 감동으로 최선을 다해 오시겠습니다.

각종대·호텔·세미나, 등... (주)비즈니스호텔 (주)비즈니스호텔 (주)비즈니스호텔 (주)비즈니스호텔 (주)비즈니스호텔

탄소 심유난방 바닥재 출시!!!

이제 난방재로 무엇을 선택할까요?

탄소 심유난방 바닥재의 장점

- 단열성: 바닥을 따뜻하게 유지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입니다.
- 내구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친환경: 탄소 배출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합니다.
- 안전성: 화재 위험을 줄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문의: 522-0117

무등산업

다양한 난방 및 보일러 제품을 소개합니다.

1. 저온방열기: 방열 면적이 넓어 실내 온도를 고르게 유지합니다.

2. 벽걸이 보일러: 공간 절약이 가능하며, 디자인이 현대적입니다.

3. 온수보일러: 난방과 온수 공급을 동시에 해결합니다.

4. 공기청정기: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합니다.

문의: 522-0117